

오즈쵸 문화재

오즈쵸 연혁

오즈쵸는 히지카와 강 주변에 있는 야트막한 언덕에 세워진 평산성으로, 뒤에 흐르는 히지카와 강을 천연의 해자로 이용하고, 남쪽을 향해 니노마루와 산노마루를 배치하여, 내해자와 외해자로 에워싼 제곽식의 성곽입니다. 별칭으로 지장 산성, 거북이 성이라고도 불립니다.

오즈쵸의 축성 시기는 명확하지 않지만, 중세 무렵 오즈 지방의 영주였던 시모즈케 국(토치기 현) 출신의 우즈노미야 씨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시코쿠를 평정한 후에, 코바야카와 타카카게, 히데요시의 충복 무사 토다 카즈타카, 축성의 명수 토도 타카토라, 시즈가타케 전투 칠본장(맹활약한 일곱 무사) 중 한 명인 와키자카 야스하루가 이어서 입성하였으나, 근세 성곽으로 본격적으로 정비된 것은 토도-와키자카 시대로 추정됩니다. 겐나 3년(1617년), 카토 사다야스가 호키 국(후토미 현) 요나고로부터 입성한 이후, 메이지 2년(1869년)의 판적봉환(영주 통치령의 국가 환수)이 있기까지 오즈 한 카토 가문 6만섬의 거성이 되었습니다.

메이지 시대에 들어 18 채나 있던 망루가 차례로 없어지고 메이지 21년(1888년)에는 천수각까지 철거되었지만, 헤이세이 16년(2004년)에 4층 4계의 천수각이 복조로 복원되었습니다.

니노마루의 볼거리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오와타야구라

지정일:쇼와 32년(1957년) 6월 18일

니노마루의 동쪽 모퉁이에 독립해 있는 망루로, 히지카와 강에 접해 있어 강의 상하류를 살살이 살필 수 있는 요지로서 성 동쪽의 방어를 맡았습니다.

창건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덴포 14년(1843년)에 재건되었습니다. 외부 모퉁이에는 하카마(주름치마

모양의 일본 전통의상) 모양의 낙석 장치를 달았으며, 그 일부를 격자창으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갖은 홍수 피해로 훼손이 심하여, 쇼와 34년(1959년)에 해체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때, 지반의 돌담을 약 2.6m 높였습니다.

에히메 현 지정문화재

시모다이도코로

지정일: 쇼와 43년(1968년) 3월 8일

맞배지붕에 혼가와 라부키(평기와와 둥근기와를 맞물려 끼워넣음) 방식을 택한 창고형 건축물로, 내부는 일부가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건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오즈쵸 내에 남아 있는 유일한 창고 건축물입니다.

건물 외부는 뒤쪽까지 석회칠이 되어있으며, 성 내의 식량고로 이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지 이후는 감옥, 제사 공작의 창고 등으로 이용되었습니다.



3 천수각 주춧돌(이설)

4 망루 밑 문터

혼마루의 볼거리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코란(난간) 망루

지정일:쇼와 32년(1957년) 6월 18일

혼마루의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와타리 망루로 북쪽의 천수각과 이어져 있습니다.

안세이 4년(1857년)에 대지진으로 크게 파괴되었으나 3년 후인 만엔 원년(1860년)에 재건되었습니다. 그 때 외벽이 시타미타바리(판자벽)에서 잇쿠이(석회벽)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높은 층 지붕에는 당파풍 처마, 남서쪽 모퉁이에는 하카마 모양의 낙석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특징은 창 바깥으로 나오기 위한 마와리엔(헛마루)에 의보주가 붙은 난간이 있다는 점입니다. 망루에 이러한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보기 드문 경우로 천수각 다음 가는 격식 높은 망루로 여겨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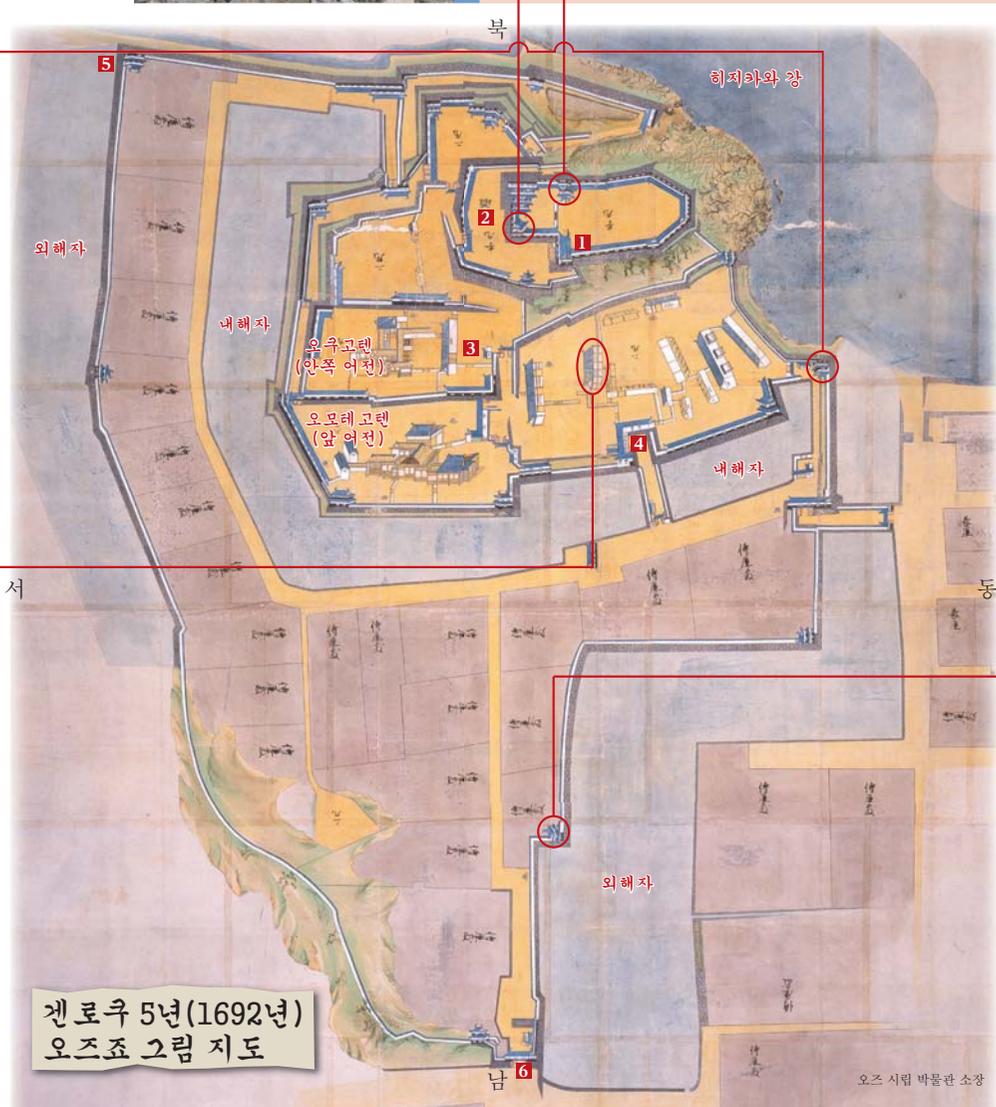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다이도코로(부엌) 망루

지정일:쇼와 32년(1957년) 6월 18일

오즈쵸에 현존하는 4채의 망루 중 가장 큰 건물이며 와타리 망루로 천수각과 이어져 있습니다. 천수각에 버금가는 규모로 '소 천수각'이라 할 만큼 위용있는 모습입니다.

에도 시대 전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안세이 4년(1857년)의 대지진으로 크게 파괴되어 2년 후에 재건되었습니다. 부엌의 기능을 겸비한 보기 드문 건물입니다. 농성시에는 병사를 위한 부엌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1층의 3분의 1이 홀마루이며 배연용 격자창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 북측에 있는 천조파풍(삼각형 모양) 지붕의 중앙에는 화두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겐로쿠 5년(1692년) 오즈쵸 그림 지도



1 쿠라가리(비밀통로) 문터



2 혼마루 우물

산노마루의 볼거리



국가 지정 중요문화재

산노마루 남쪽 모퉁이 망루

지정일:쇼와 32년(1957년) 6월 18일

산노마루의 외해자 남쪽 모퉁이에 위치하며 현존하는 오즈쵸 망루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창건 연대는 분명치 않으나 교호 7년(1722년)에 화재로 소실된 것을 44년 후인 메이와 3년(1766년)에 재건하였습니다. 중요한

곳에는 솔송나무를 사용하고 기둥에는 소나무를 사용하였으나, 한의 재정난 때문에 공사에 관리들이 동원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함꼐했던 사실을 무나후다(현판)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내부는 타이코 벽(벽을 두껍게 한 부분)에 대나무관을 안에 넣고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도록 흙벽으로 덮은 좁은 틈인 카쿠시자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 산노마루 북서쪽 모퉁이 망루터



6 서문터